

2020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인문학과 통번역

일 시: 2020년 3월 28일(토)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2020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인문학과 통번역

일 시: 2020년 3월 28일(토)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12:40-13:00	등 록			
13:00-13:10	개회사	이혜승 회장 (수원대)		
13:10-13:20	시상식	2020 한국통역번역학회 우수 논문상 시상식		
1 세션 13:20-15:00	좌장 김순영 (동국대)	발표	이상원 (서울대)	번역을 가르친다는 것
			김성우 (서울대)	개념적 은유이론과 번역교육: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탐구
			윤성우 (한국외대)	타자의 인문학으로서 번역(학)
		토론	성초림(서울대), 최은아(한국외대), 이향(한국외대)	
15:00-15:20	Coffee Break			
2 세션 15:20-17:20	좌장 임향옥 (한국외대)	발표	홍설영 (한국외대)	통역교육을 위한 연설문 유형분류
			임세인 (한국외대)	포스트휴먼 시대의 통역사 교육: 테크네인문학적 가치의 고찰
			박건영, 남희지, 임소연 (한국외대)	영화 기생충 자막의 문화소 번역 연구
			공수 (이화여대)	코퍼스를 활용한 표층결속성 번역 교육 연구 -한중 기술번역을 중심으로
		토론	김영주(덕성여대), 신혜인(한동대), 홍정민(동국대), 손지봉(이화여대)	
17:20-17:30	폐 회			

※ 코로나 19 사태로 프로시딩 배포로 학술대회 대체합니다.

오프라인 발표는 2020년 10월 2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상의 발표, 시간 및 순서는 추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번역을 가르친다는 것

이상원 (서울대 기초교육원)

이 발표문은 이론적 논의라기보다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적 의견 개진에 가깝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

1. 문제의 인식

연구자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 교과목을 운영한 지 이십여 년이 되었다. 여러 대학에서 학부생 대상 교양이나 전공으로 개설된 번역 교과목 또한 6년 이상 운영해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생겨난 문제의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번역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실제로 향후 번역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학부생은 물론이거니와 통번역대학원생들도 졸업 후 프리랜서로 번역에 전념하기 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일반직이 아닌 번역 전문직으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직장에서 요구되는 여타 업무를 점점 더 많이 맡는 것이 보통이다. 연구자는 공공기관의 통번역 전문 인력 선발 과정에 면접관으로 참석하게 되었을 때 통번역 전공자가 오히려 선호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하고 당황하였다. 기관 담당자는 통번역 전공자가 통번역 외의 업무를 맡지 않으려 해 조직의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째, 학생이 향후 번역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학부의 경우 한 학기, 대학원의 경우 4학기의 번역 교과목 이수에는 충분한 번역 능력을 갖춰주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번역 능력은 현장의 업무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유형의 능력인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의식은 학부와 대학원의 번역 교과목이 번역 기술 전수에 치중한 협소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2. 번역 기술 전수에 치중한 협소한 번역 교육이란?

번역에 종사할 인력을 키워낸다는 목표 하에 언어적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 * 원문을 문장 단위로 번역하면서 연습하는 것
- * 번역 연습을 통해 원문 언어 및 번역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 * 특정 표현에 대한 번역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방식이 번역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기존 교육 방식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번역 강의실의 많은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이 번역 교육의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학생의 진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기술 전수가 단시간 내에 얼마나 가능하며 향후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3. 그렇다면 번역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나?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번역을 매개로 한 학생의 인문학적 잠재력 향상’이다. 이 잠재력은 향후 학생이 어떤 분야에 진출하든 유익하게 발휘될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장기적으로 갈고닦을 수도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 이해와 분석 측면이다. 텍스트는 글쓴이의 감정, 경험, 논리,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텍스트를 마주한 번역가는 언어적 표상을 넘어선 심층 구조를 찾고 알아내며 나름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텍스트가 왜, 누구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의도하며 만들어져 구성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분석적 읽기는 인문학 공부의 토대를 이루는 작업인데 번역은 가장 치열한 읽기 형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연습하고 익히기 좋은 방법이다. 모든 텍스트는 모종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해석학의 개념도 여기 적용할 수 있다. 번역가는 치열한 읽기를 통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질문과 대답을 찾아내는 존재가 된다.

둘째, 번역과 번역가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인식 측면이다. 번역가는 저자에 대해, 번역문은 원문에 대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때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또한 향후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번역이라는 현상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다. 어떤 텍스트가 어떤 이유로 선택되어 어떻게 번역되는가는 번역 주체를 넘어선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결정한다는 점도 인식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글을 매개로 한 인문학적 의사소통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준다.

4. 인문학적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번역 교육 방법은?

교수자가 다양한 방법론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 방법론에 따른 번역 수업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들의 번역 순서를 정한다. 10인 이하 소수 강좌라면 한 회 수업에 한 명씩, 그 이상의 다수 강좌라면 3-4명씩 배치한다.
- 2) 원문은 번역하는 학생이 직접 선택한다.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텍스트를 다루기 위해서이다. 다수 강좌여서 여러 명이 번역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학생들이 사전에 논의하여 동일한 원문을 선택한 후 각자 번역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 원문에 대해 다수의 번역문을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 3) 번역하는 학생(들)은 해당 수업 한 주 전에 원문과 번역문을 온라인 강의실에 올린다.
- 4) 수업 전까지 다른 학생들은 원문과 번역문을 미리 읽고 비평 댓글을 단다. 이견, 질문, 평가 등을 담은 댓글이다.
- 5) 수업 시간에 번역한 학생(들)이 비평 댓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6) 학생 전원과 교수자가 함께 원문 및 번역에 대한 질의응답과 논의를 벌인다. 질의에 주로 응답하는 사람은 교수자가 아니라 번역한 학생(들)이 되도록 한다.
- 7) 이후 번역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 번역과 함께 수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게

한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수정본에 대해 논의하는 수업을 해도 좋다.

이 방법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토론 중심 수업이다. 교수자는 학생들과 다름없는 1/n의 토론 참여자가 된다.
- * 학생은 번역가로서, 또한 독자로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 * 한 회 수업은 학생 전체가 아닌, 한 명 혹은 몇 명의 번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 원문을 학생이 선택하는 만큼 교수자는 수업 전에 원문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의 번역 및 댓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 토론 과정에서 원문의 특성, 핵심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 * 토론은 학생 번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번역 전략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둔다.
- * 번역문에 드러난 번역가의 특징, 강점과 한계 또한 토론의 주제이다.
- *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가능한 대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론에서 기대되는 교육 효과는 다음과 같다.

- * 다양한(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학생 집단의 관심사와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원문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 * 동료 학생(들)의 서로 다른 번역을 접하면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인식하고 각각의 접근법을 존중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접근 차이가 나타났는지 또한 성찰할 기회를 얻는다.
- * 각기 다른 부분에서 나름의 강점을 드러내는 동료 학생(들)의 번역을 보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 * 번역 현상, 번역가, 번역물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형성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방법론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 계량화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연구자 개인적으로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자의 고민이 필요하다.

5. 번역을 가르친다는 것

번역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수자로서 학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번역을 공부하는 오늘날 학생의 미래는 과거 번역을 공부했던 교수자의 현재 삶과는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기계 번역, AI 번역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시대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 발표문에 제시해본 방법론은 연구자가 생각해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번역을 바탕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인문학적 잠재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완과 수정이 가능하다. 현재의 번역 교과목이 어떤 목표를 지니고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원(2008). 통번역 대학원 BA 번역강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통역과 번역* 10(1), 93-107.
- _____(2009). 함께 읽기와 동료비평을 통한 글쓰기 수업, *사고와 표현* 2(2), 139-184,
- _____(2013). 통번역대학원의 이론 강좌 고찰 - 신설강좌 ‘통번역이론 강독’을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7(1), 159-176.

타자의 유형을 통해서 본 번역학

-윤리적/정치적/사회적/생태학적 전회를 중심으로

윤성우(한국외대 철학과)

이 글은 번역학에서 타자(他者, the other, l'autre)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를 대강이나마 그려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번역담론에서는 물론이고 인문학 전반에서 '타자'란 흔히 나(우리)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세계관으로 이해된다. 번역담론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논의될 수 있는 타자의 유형은 아주 다양할 수 있다고 본다¹⁾. 하지만 그 모습 전부를 시도하기 보다는 지면이 제한된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에 주로 등장하는 타자의 유형들을 살펴보고 '윤리적', '정치/사회적', '생태학적' 전회를 중심으로 접근해보자 한다.

1. 윤리적 전환에서의 타자

번역학에서 등장하는 타자의 유형에 관심을 둔 본 연구는 2000년 이후로 주목할 만한 변곡점 중의 하나가 '윤리적' 전환이라고 판단한다. 그 단적인 예로 2001년 핼이 편집자로 참여해서 만든 *The Return to Ethics: Special Issue(The Translator: Studi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001, vol 7, n2)*와 최근 2017년 같은 저널에서 역시 Special Issue로 나온 *Translation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2017, 23:2)* 라는 제목의 특집호들을 들 수 있다. 이 두 특집호의 키워드가 'ethics'여서만은 아니다. 1990년을 전후로 해서 '윤리'가 중요한 주제가 된 것은 서양 철학 담론(예를 들어, 앞으로 언급할 한스 요나스, 피터 싱어 등)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번역학의 다양한 진영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베르만, 영국에서의 스타이너, 그 후로 이어지는 베이커(Mona Baker), 잉기러리(Moira Inghilleri), 라파엘(Vicente L. Rafael), 미국에서는 베르만을 명시적으로 따르는 베누티, 또는 양대륙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핼, 체스터만 등에게서 윤리는 중요한 한 꼭지를 차지했던 게 틀림없다. '윤리'(ethics)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도 중요하고 이것이 번역의 영역이나 번역학의 영역에서 어떤 함의와 적용가능성을 가지게 되는지도 중요할 것이다.²⁾

1)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번역의 역사를 다룬 몇몇 문헌들과 연구들을 통해서 보건대, 번역을 둘러싼 인간의 여러 실천적 장(場)- 예를 들어 전쟁과 정복, 국제 교역, 보다 순수한 의미의 문화/문학/학문의 교류 등-에서 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에 번역에 대한 이론적이고 성찰적 분과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서 타자는 부단히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며 등장한다. 이 논문의 본문에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지는 윤리적, 정치/사회적, 생태학적 타자라는 유형 이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개괄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1. 폭력적인 타자: 스페인 (대(對) 말린체), 미군 함선 (대(對) 일본 사무라이), 일본 제국주의/미국 점령군 (대(對) 한국 문학자와 여성 번역가).
2. 우월한 타자: 그리스·로마/프랑스 (대(對) 독일(낭만주의))
3. 경험과학으로서의 번역학에서의 타자: "비교"(비네-다블레)와 "접촉"(조르쥬 무넝), "중재"(안소니 핼) "이국화"(베누티)의 대상으로서 타자.

보다 역사적이고 완결적인 타자 유형에 대한 차후의 연구에 앞서, 지금의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비교적 가까운 2000년을 전후 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2)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윤리'개념과 '도덕' 개념의 구분을 통해서 본 번역윤리"(『통역과 번역』,

1: 미래 세대의 독자로서 타자: 벤야민, 한스 요나스

필자는 지난 선행연구(2015년)³⁾에서 번역 작업의 결과물로서의 번역 작품과 그것을 읽는 당대의 독자만이 아니라, 당대의 독자를 넘어서서 미래세대가 읽을 작품과 그 미래 독자들까지도 번역학의 배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번역의 중요성과 의미심장함은 당대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지난하게 이뤄지는 번역의 작업의 가치와 파급성이 담보하는 '미래성'에 그 무게를 두는데서 비롯된다. 이미 벤야민은 번역물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그 원작품의 명성에 의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번역이 원작품의 명성에 기여할 수도 주장하면서, 더구나 사후적인 '번역 속에서 원작품의 생명이 거듭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생명이 뒤늦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자신을 전개'⁴⁾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실상 전자의 경우가 통상적이고 일상적 의미의 번역가능성이나 번역됨직함의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벤야민이 진정으로 새롭게 주목해서 드러내야 할 번역됨직함(번역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번역은 원작에 대해, 오직 원작의 번역을 통해서만 제대로 드러나는 원작의 재생, 부활의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원작에 대한 번역(작품/작업)의 윤리적 책임 또는 과제를 언급하는 측면이 크지만, 번역은 원작에 대해서만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나아가 번역자의 번역작업과 결과물은 원작의 번역이 유포되는 시점의 그 당대 독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번역 작품을 읽게 될 미래세대의 독자까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은', '더 좋은' 번역을 향한 윤리적 문제제기는 원저자와 그 당대의 독자, 번역자와 그 당대의 번역독자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작품을 접하게 될 '읽을 수 있는 누구나'까지도 고려에 넣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서양철학의 맥락에서 통상적인 '책임' 개념의 과거적 및 현재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그 미래적 특성을 부여한 이가 바로 윤리학자 한스 요나스(Hans Jonas)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책임' 개념의 의미는 'X는 자신이 (이미) 행한 또는 행하고 있는 행위 Y를 책임져야 한다' 정도에 머문다. 하지만 요나스는 '책임' 개념의 확장을 시도한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의 시제가 미래로 확장 된다.⁵⁾ 요나스의 논점은 결국 이런 것이다. X는 자신이 (이미) 행한 또는 행하고 있는 행위Y가 미치는 결과나 영향이 미래세대인 X1, X2, X3.....Xn 등에 심대하게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들이 미래시점에 존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에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책임의 미래성을 번역학에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의 명제가 가능할까? 번역자는 자신의 번역행위와 그 결과인 번역 작품이, 벤야민의 직관적인 소망대로, 원전에 대한 재생이나 부활을 담보하는 책임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독자들의 읽기, 해석, 행위에 심대하게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번역행위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번역의 스코프스

17 (3), 2015)에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II의 논의는 특별한 수정 없이 그것을 상당이 가져왔다.

3) 바로 위 연구 “‘윤리’개념과 ‘도덕’ 개념의 구분을 통해서본 번역윤리”(『통역과 번역』, 17 (3), 2015)를 가리킨다.

4) 벤야민, 「번역자의 과제」, 최성만 옮김, 2008, 길, p.125.

5)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말아라.” (요나스,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이진우 옮김, 서광사, 1994, pp. 40-41)

가 현재의 독자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독자들도 염두에 두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사회적 약자로서의 타자: 잉그힐리, 베이커, 라파엘

우리는 앞서 2001년의 Return to ethics라는 특집과 2017년 23(2)의 Translation,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라는 특집을 2000년대 이후 번역학의 윤리적 전환을 알려오는 중요한 지표로 제시했었다. 이 두 제목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외형상의 변화는 “사회적 책임” 개념의 등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임적 주체”는 당연 번역사와 통역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엇비슷하게 윤리라는 문제 지평을 강조하면서도 두 특집을 차이 나게 하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2001년과 2017년 특집의 저자들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The ethical task of the translator in the geo-political arena: From Iraq to Guanta’namo Bay”의 저자 잉기허리, “Ethics of renarration”의 저자 베이커⁶⁾ 그리고 “Translation and the US Empire”의 저자 라파엘이다. 이들의 번역담론에서 등장하는 타자는 ‘윤리적’ 고려의 타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이 ‘정치적’ 배려의 타자의 모습도 함께 가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잉그힐리는 쿠바의 관타나모기지에서 테러 용의자를 심문하고 취조하는 현지 통번역사의 보고에 기반을 두어서 통번역사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타자의 모습이 얼마나 취약하며 불평등하며 억압받는지 증언한다.⁷⁾ 이는 강령이나 코드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통번역(대)학교나 통번역사 협회에서 학습되고 가르쳐지며 단지 선언되기만 한 번역의 윤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강렬하고 충격적인 타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베이커 역시 통번역의 실제적인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거나 담아내지 못하는 “다른 참여자”(other participants)⁸⁾을 고려하는 ‘개입주의적’ 번역윤리를 구상하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다른 참여자들이란 베이커에게는 한미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라파엘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점령지에서 미군 당국이 통번역사를 대저항(對抵抗) 작전에서 지배전략의 도구로서, 지배수단으로서 활용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통번역사들이 미군 당국에 의해 타자화되고 무기화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까지도 의사소통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⁹⁾

통번역 현장과 그 담론에서 등장하는 타자의 형상을 유형적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논점에서 이들이 드러내고 가시화하는 타자들은 전쟁포로, 약소국의 점령지 국민들, 또 이런 사람들을 통역하고 번역할 때 타자화/도구화/사물화되는 통역사들 자신이다. 스페인 제국주의 침략에 이용된 말렌체가 노정환 모습이 “폭력적인 타자”의 16세기 피해자 버전이라면, 앞선 세 명의 통번역학자들이 다른 타자의 모습은 미군당국에 의해 소외된 정치적 타자의 21세기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⁰⁾. 2000년 이후로 번역이나 통역이 참여한 국제적 분쟁과 갈등 지역에 더 많이 개입됨으로써 통번역사들이 고려하며 사유해야만 타자들은 (국제)정치적으로 소외를 겪는 타자들이다. 통번역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들을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6) 그녀의 다음 논문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War Zone: Narrated and Narrators’, in M. Inghilleri & S.-A. Harding (eds.) *Translation and Violent Conflict*, Special Issue of *The Translator*, 16(2): 197-222.

7) 잉그힐리, *Translation Studies* 1 (2): 212 - 223. p 221

8) 베이커, (2008, *Cultus* 1, 1, 10-33, interviewed by Andrew Chesterman), 17. 강조는 필자.

9) 라파엘, (2012, *The Translator*, 18:1,1-22), 2-5

10)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김윤경, 「코르테즈의 통역사, 말린체: ‘민족의 번역자’인가 ‘건국의 어머니’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권2호, 2010, 박소영, 「식민지 여성 통역사: 말린체와 배정자」, 『통번역학연구』 19권 1호, 2015.

의견이나 입장은 서로 다를 있지만, 통번역 활동이 이런 소외된 타자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타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통번역사가 단지 강대국 군대와 정부와 거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Just translate”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존재들인 동시에, 통번역사 자신들이 이런 타자들에 대한 모종의 행위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정치적 행위자(agent)일 수밖에 없음을 자각시켜주는 타자들인 것이다. 말린체나 배정자가 어느 정도 지배자와 지배제국과 동일한 정치적 진영에 보조를 맞추던 통번역사였다면, 적어도 앞서 세명의 연구자들이 기술하고 지적한 통번역 상황의 통번역자들은 스스로가 어떤 행위자로서 그런 소외된 타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도록 강제당하는 통번역사들인 것이다.¹¹⁾

앞서 언급한 변연윤리를 다룬 두 특집호를 구별 짓는 요소인 바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물음에 답해보자. 정치적 고려나 배려를 필요로 하는 타자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타자들이 국경을 가로지르며 언어적 소통의 현장에 개입되는 사람들이라면, 사회적 책임의 타자들은 한 국가/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공동체적 삶”¹²⁾ (better living together)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다. 계급이나 연령, 출신국적 그리고 건강상태 등등에 따른 불리함 때문에 한 사회 내에서 언어적 소통의 현장에서 소외된 “취약한 사람들”(vulnerable populations)¹³⁾인 셈이다. 의료현장이건 법률현장이건 그동안 주로 고객-통번역사라는 이원적 소통구조에서 배제되고 소홀히 되었던 타자들인 셈이다. 이들은 단지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의 내용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통번역자가 “공감의 능력”(an ability to empathize)을 발휘하여 배려해야 할 타자들(consideration for others)인 것이다¹⁴⁾. 한 사회 안에서 그동안 이원적 구조에 따라 자신의 직업적 활동에 몰두해온 통번역사들은 이제 단순히 고객-통번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언어적 매개자의 역할에 머물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타자들을 “보다 더 큰 사회”¹⁵⁾(the wider society)안으로 통합시키는 역할까지 해냄으로써 공동으로 사회적 상호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품이 참여한 2001년의 특집이후로, 타자의 유형이 정치적 타자이건 사회적 타자이건, 그 유형을 불문하고 타자들이 나타나는 장(場)에 대한 번역학적 관심과 의식화가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통번역사들은,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그들의 통번역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고려해야 할 타자들의 유형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는 결국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점증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동물로서의 타자 그리고 자연 환경 그 자체로서의

11) 이 문제에 관해 최근에 필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대강의 윤곽은 2019년 7월에 있었던 한 국제학술대회(9th Asia-Pacific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Forum, APTIF9)에서 발표된 “How can we improve the code of ethics for translators?”(Seong Woo YUN & Hyang LEE) 에 나온다. 이 공동연구의 전체는 2020년 12월에 국제저널 *Babel* 에 게재될 예정이다.

12) Joanna Drugan & Tipton, Rebecca. 2017. “Translation,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Translator* 23 (2): 119 - 125.

13) Joanna Drugan(2017),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gaging with and beyond the professions, 138. *The Translator* 23 (2): 126 - 142.

14) Joanna Drugan(2017),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gaging with and beyond the professions, 136.

15) Joanna Drugan(2017),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gaging with and beyond the professions, 138

타자: 아렌트, 피터 싱어, 크로닌

이상의 논의를 통해, 번역담론에서 타자의 유형이 더 확장되어가고 복잡화되어 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번역사들이 중재/매개하는 것은 단지 언어, 문화,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강자와 약자, 사회의 기득권 구조와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번역담론의 타자의 유형의 여정이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가 통역하고 번역하고 결국 이해해야 할 타자들의 목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번역담론에서 마지막 타자의 유형으로서 동물과 자연 그 자체(또는 환경)을 제시하는 마이클 크로닌을 언급하기에 앞서, 타자의 언어(입장 및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야말로 전체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한 한나 아렌트의 생각과 동물들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님을 고통 개념을 통해 역설한 윤리학자 피터 싱어의 주장을 크로닌으로 가기 위한 중간 논의로 삼고자 한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¹⁶⁾에서 아렌트가 희대의 전범자 아이히만에 대한 언급에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가 말하는데 무능력(inability to speak)하다는 것은 그의 생각하는데 무능력(inability to think),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무능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the words)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the presence of others)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reality as such)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¹⁷⁾. 번역담론과 번역 활동에 있어 나타나는 타자의 유형에 관심이 있는 필자로서 아렌트의 이 구절은 아이히만이 타자에 대한 번역과 현실에 대한 번역에 실패했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아렌트의 전후 분석에 따르면, 그가 관청용어나 상투어만을 반복해서 말하는 언어습관을 가졌다는 점¹⁸⁾ 그리고 “학살은 최종해결책, (수용소로의) 이송은 재정착”¹⁹⁾으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이를 “살인”이라 부르지 않고, “안락사”²⁰⁾로 바꿔 부르는 독특한 언어규칙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를 읽어본다면, (유대인으로서의) 타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체험할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는 철벽같은 것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 벽을 뚫고 실재와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관청의 상투어들을 아이히만이 사용함으로써, 타자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고통과 절망의 기호들을 그가 전혀 번역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평범한’(banal) 악은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악마나 광인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말, 입장, 태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즉 그것을 번역하지 못하면 악이 되는 것이다.

타자의 그 어떤 말이, 처지가, 태도가 제대로 번역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사례가 타자로서의 유대인에 국한된 이야기일까? 우리가 타인을 번역하지 못해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악의 행태가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한 인간인 타인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고기를 제공하는 가축들에게 이루어지는 매일의 일상적 일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논증하는 윤리학자가 바로 『동물해방』²¹⁾의 저자 피터 싱어이다. 아렌트가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싱어는 종(種)차별주의에 반대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사이의 끝없는 구별²²⁾에 의해 전자를 고유하게

16)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17)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107

18)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105

19)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149

20)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177

21) 1975년에 원서의 초판이 나왔고, 『동물해방』(김성한 옮김, 1999년, 인간사랑).

특징지어 오던 사상/문화/세계관에 익숙한 우리에게 싱어는 단 한 가지 관점에서 종들간의 차이나 차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사람과 동물이 공히 “쾌고 감수(感受)의 능력(limit of sentience)”²³⁾, 다시 말해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²⁴⁾ 을 가지고 있는 한, 각 존재/각 종(種)은 이익(interests)을 가지는 것이며, 이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쥐가 도로 위에서 고통을 겪는 한, “쥐가 차에 치여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²⁶⁾이 우리의 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싱어는 가축이나 비(非)가축 모두를 포함해서 동물들이 산업식 사육이나 다양한 실험들에서 고통 받는 사례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인용과 연구를 통해 우리가 종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논증과 예들 속에는 아이히만에 대해 아렌트가 비판했던 언어습관/언어규칙에 대한 언급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적 기만”에 대한 구절이 있다: “우리는 쇠고기(beef)를 먹는다고 하지 황소(bull), 거세황소(steer) 또는 암소(cow)를 먹는다고 하지 않으며, 돼지고기(pork)를 먹는다고 하지 돼지(pig)를 먹는다고 하지 않는다”²⁷⁾. 다소 과장된 주장일지는 모르나, 우리 인간도 동물들의 처절한 현실과 생생한 실재로 다가가는 것을 가로 막는 기만적 언어의 철벽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싱어는 “생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은 나치”²⁸⁾라는 한 유대인 작가의 지적을 자신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삼는데 주저함이 없다.

번역담론에서 타자의 형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에서 보자면, 아렌트와 싱어의 논의는 크로닌의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²⁹⁾에 대한 예비적 논의의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번역활동과 번역담론에서 이제 우리와 같이 인간의 얼굴을 한 채로 제대로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했던 취약한 타자뿐만 아니라, 크로닌이 주장하듯, 동물일반과 환경까지도 번역의 담론에 포함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크로닌의 2017년의 이 저작이 가진 아주 풍부한 시사점이나 아이디어를 전부 다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그에게서 타자의 형상이 새롭게 전제되고 드러나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자 한다.

2010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번역과 정체성』의 3장(통역과 정체성)의 마지막을 보면, 크로닌은 다양한 갈등과 불화의 상황에서 통역이 멈추게 되는 순간에 “즉, 사람들의 이름이 더 이상 거명되지 않고 그 목소리들이 침묵하게 되는 순간에, 진실(the truth)이 포탄과 군대의 가장 극적인 희생자가 된다”³⁰⁾고 말한 적이 있다. 2017년 이후 크로닌은 그 “사람들의 이름” 자리에, “목소리”의 자리에 동물의 이름과 목소리를 갖다 놓으며, “희생자”의 자리에는 지구 환경/세계를 갖다 놓는다. 도대체 그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착상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의 세 가지이다.

22) 예를 들어, 이성, 자율성, 정의감 등등 이다.

23) 『동물해방』, 45

24) 『동물해방』, 43

25) 『동물해방』, 42.

26) 『동물해방』, 43.

27) 『동물해방』, 174

28) 『동물해방』, 156

29) Michael Cronin,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2017, Routledge.

30) 크로닌, 『번역과 정체성』, 김용규·황혜령, 2010, 동인. p. 247 원문을 참고하여 약간 다르게 번역하였다.

1.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³¹⁾.
2. 우리는 지금을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³²⁾로 규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번역학도 단지 인간 세계를 넘어서 더 많은 존재자들의 세계(post-human, post-anthropocentric, the more-than-human world)³³⁾를 고려해야 하며, 인간 아닌 존재자와의 상호연관성(relatedness to the non-human)에 기반해서 동물 및 자연환경을 번역하는 기호계 상호적 소통(intersemiotic communication)을 자신의 연구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³⁴⁾

크로닌이 야콥슨이 말한 기호간 번역이라는 테마를 인간언어-동물언어 사이의 번역으로 곧장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크로닌은 아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인간의 언어, 그의 삶이 뿌리 내린 장소(place), 그 지역의 산물로서의 음식재료, 그리고 문화적 노하우로서의 레시피 등의 결합물로서의 음식(food)에 대한 번역의 문제를 제기한다. 왜 음식(혹은 요리)인가? 또 왜 그것의 번역 문제인가? 크로닌이 보기에 “물, 공기, 기후, 전통적 지식과 노하우”³⁵⁾의 창의적 결합물로서의 음식은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 자연환경 전체와의 “생태학적 재생에 근거한 원순환적 논리”(cyclical logic of ecological regeneration)³⁶⁾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미 음식은 인간이 자연 전체를 잘 번역한 대표적 인간적 상징이자 기호인 것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번역학적 버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인간과 자연이 에코시스템(ecosystem)³⁷⁾ 안에서 분리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하고 일상적 사례가 음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간-자연의) 원순환적 논리는 진보와 발전의 단순한 직선적 논리(linear logic)에도 반대될 뿐만 아니라, 언어 간의 번역을 “정보의 직선적인 전달과정”(a process of straight information transfer)³⁸⁾으로, 즉 “일종의 운송”(a form of transport)으로 파악하는 전도(顛倒)의 논리(logic of inversion)와도 반대된다. 전도란 다름 아니라 본래 자연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스스로 안으로 접어서 가두게 하여 주변 환경 세계에 맞서게 하는 논리”³⁹⁾라는 것이다. 크로닌 스스로가 인용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형상설에 입각해서 그가 음식에 주의를 기울⁴⁰⁾이는 이유를 들어보자. 음식이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질료(matter)에다가 마음속에 간직한 어떤 특별한 디자인을 강하게 새겨 넣는 방식으로 행위자가 만들어내는 창조물”⁴¹⁾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질료에 형상을 강요하는(물질에 형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을 서로 함께 모아서, 이 재료로부터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대하면서, 이 재료들이 가진 흐름들(flow)을 조합하거나 새로이 전용(轉用)함으로써”⁴²⁾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요리는 건축가, 정원사, 연금술사 그리고 화가와 비

31)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32) 1995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덜란드의 크뤼첸(Paul Crutzen)이 2000년에 처음 제안한 용어로서, 새로운 지질학적시대 개념이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환경체계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류는 기후변화, 환경재해,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 등의 대가를 치르게 된 시대를 가리킨다.

33)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10, 12, 13

34)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19

35)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29

36)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35

37)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7

38)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29

39)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29

40) 이 책 1장의 제목이 “paying attention”(주의를 기울이기) 이다.

41)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5

42)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6

슷하고, 번역자도 언어의 재료들을 버무려 조합하고 전용한다는 점에서 요리사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⁴³⁾프랑스의 특정한 장소나 지역에 연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와인에서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종의 생선 스투인 부이아베스(bouillabaisse)는 마르세이유라는 항구도시와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⁴⁴⁾ 삼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전 지구상에 특정의 한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⁵⁾ 그렇다고 이런 독특한 지역성이 분명 이런 음식의 번역에 저항, 심지어 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의 번역가능성(번역됨직함, translatability)의 조건 자체”⁴⁶⁾라고 크로닌은 주장한다. 음식과 언어와 생태(적 환경)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음식의 이름이 자신의 기원이나 출발 혹은 발생에 대한 통제적 관리를 벗어나서, 즉 다른 나라와 문화로 이주나 수출되어, 다른 이름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나 저항은 오히려 그것이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는 전제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⁴⁷⁾ 지역성에 기반을 두기에 번역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런 음식의 이름이나 음식의 언어들은 그 만큼이나 더 번역을 요구하고 번역으로 초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⁸⁾ 결국, 크로닌은 새로운 음식의 유입, 새로운 음식 이름의 도래, 그리고 새로운 커뮤니티의 이주가 통약 불가능한 것의 창조적 잠재성(the creative potential of the incommensurable)⁴⁹⁾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는 더욱 더 많은 번역의 요청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음식과 그 이름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생태 환경에 대한 크로닌의 번역생태학 또는 생태학적 번역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잘 설명하는 대로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 인간만이 사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종(種) 파괴에 책임이 있다”⁵⁰⁾.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을 재배하는 관행이나 실천의 양태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종과 동물종의 이동과 이주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이런 사정은 아마존의 숲이 없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며,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야생 동물의 섭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사건을 설명하기도 한다. 크로닌의 말대로, 이렇게 종(種) 상호간의 연결성(inter-species relatedness)은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 행위를 요구한다.⁵¹⁾ 자연 환경으로서의 공기, 물, 기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번역”(translating animals)⁵²⁾ 해야 하는 것이다. 공기, 물, 토양, 심지어 석탄과 기름(oil) 등이 어쩌면 번역이 고려해야 할 비감각적 존재자들(non-sentient beings)⁵³⁾이라면, 이제 번역담론은 이제 그 동안 우리

43)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6

44)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7

45)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8. 프랑스의 예만을 들었지만, 크로닌은 이탈리아의 다양한 커피들, 마키아또, 시나몬 dolce, 프라푸치노 등의 예도 곁들인다.

46)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8.

47)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48.

48)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53.

49)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53.

50)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53. 인류세 시대를 가장 잘 명료하게 담은 문장이다.

51)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53.

52) 이 책 3장의 제목이 이것이다.

53)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71. 마치 성층권(statopshere)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이 페이지에서 크로닌은 ‘tradosphere’(번역권, 翻譯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번역(적) 시스템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안에서 생물 존재와 비생물적 존재 사이의 정보가 순환되어 돌아다니고, 정보들은 그것을 수용하

에게는 우리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로 이해되어온 “꽤 고 감수(感受)의 능력을 가진 다른 (인간 아닌) 존재들”(other sentient beings)⁵⁴⁾을 어떻게 사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로닌이 제안한 번역생태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타자 유형의 결정판이다. 인간과 다른 동물 그리고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나 변별적 특징을 강조하는 사유만으로는 생태학적 실패와 절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생존의 전략인 것이다.⁵⁵⁾

크로닌이 생각하는 공동의 생존전략이란 다른 아닌 번역의 전략이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피지배자들이 통번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의 도구나 사물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우리가 (동물인) 타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때라야 그들은 인간들의 식민지배적 실험의 대상에서 벗어나 “탈-식민지적 표현의 해석학적 주체”(the hermeneutic subject of post-colonial expression)⁵⁶⁾ 될 수 있는 것이다. 타자인 동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해서는 타자의 생존, 타자와 우리와의 공동의 생존과 지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너무나 평범한 악을 동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번역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인간-동물 간의 소통을 번역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성을 크로닌은 다음의 세 가지로 규정한다. 1. 동물 주체의 복권(주체로서의 동물의 복권, the rehabilitation of the animal subject) 2. 차이를 담보하기(engaging difference) 3. 종(種) 횡단적 행위능력(cross-species agency)

1. 동물적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의 회복은 무엇인가? 동물에게 주체성이란? 그들에게 이성의 능력, 판단의 능력, 행위와 책임의 능력을 주자는 주장인가? 필자가 열거한 이 능력들은 대개 서양근대 철학 담론에서 인간인 주체성에게 부여하던 능력들이다. 하지만 크로닌은 우리와 함께 이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적 존재들인 동물이 “치명적인 대상화/사물화”⁵⁷⁾의 위협에 놓여 있기에, 여기에 대항하는 동물적 주체성 개념을 등장시킨다. 동물의 사물화가 무엇인가? 피터 싱어가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식 및 공장식 농장에서는 동물들을 작은 케이지에 넣고서 그들이 도살될 때까지 가둔다. 다른 아닌 인간 중심적 질서의 강요이다. 동물적 주체화란 우선 동물들이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바를 번역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번역을 통해 감수성을 지닌 존재로서 동물들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크로닌에 의하면, 억압받고 지배당하는 인간들에게 그 자신의 언어를 돌려주는 것이 해방이듯, 동물들에게도 그 자신의 언어를 돌려주는 것, 다시 말해 그 언어의 번역을 통해 종(種)상호간 소통을 확보하는 것⁵⁸⁾, 이것이 바로 동물적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이다.

는 존재자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되거나 코드로 번역되는 그런 곳이다. 여기서 크로닌은 흥미로운 설명을 하는데, 석탄이나 오일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며 오히려 이런 재료들에 인간의 노동 활동이 가해져야 결국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소위 ‘에너지’는 자연과 인간 노동(labour)의 공동 생산물이라는 것이다. 석탄과 오일 자체는 여전히 인간의 가공이나 노동에 저항하는 타자들인데, 이런 물질적 타자들을 인간이 이해하고 사용가능하도록 번역해주는 활동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다. 자연 자체에 대한 인간의 번역 과정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다.

54)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19, 53

55)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69.

56)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74.

57)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78

58)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77.

2. 차이를 담보하기(engaging difference)

이것은 무엇인가? 동물적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착상은 우리 인간이 동물의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번역한다는 것이 타자인 동물들을 마치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번역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로닌은 Katmai 국립공원에서 회색곰과 13년간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진 티모시 트레드웰(Timothy Treadwell)이 결국 그 곰에 의해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적절하게 차이를 담보하는 탈-인간중심적 번역 윤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동물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고 번역도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넘어설 수 없는 차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자의 타자성은 그것의 번역이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과 다른 것에 의해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으며 또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크로닌은 “생명적 실재가 가진 다원적 관점”(the multi-perspectives of lived reality), “차이 유지적 관점”(differing perspective)⁵⁹⁾이라고 부른다. (동물의 번역이든, 사물의 번역이든 오히려) 진정한 번역은 오히려 인간-동물 사이에, 인간-동물-사물 사이에, 아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환원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관계 맺기”(relationship)⁶⁰⁾라는 것이다. 크로닌이 인용하는 동물과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보자 ; “말을 타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말의 고삐를 잡아당긴 채 (말 위에서) 무엇을 할지 사람들에게 말의 안장에 앉아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진정 말을 타는 것은 상대방과 한 조를 이루어 무도회 춤을 추거나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것과 많이 비슷해요. 그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⁶¹⁾

3. 종(種) 횡단적 행위능력(cross-species agency)

지구가 인간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는 점은 생물학적/생태학적으로나 명백하지만, 인류세 시대에 이런 사실은 인류가 그 스스로에게, 또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환경 자체에게 어떤 태도와 어떤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물음을 던진다. 번역담론에서 타자의 출현과 그 유형에 관심을 가진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크로닌의 기여는 결정적이고 전환적이다. 그 성격은 생태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타자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동물과 환경을 번역해야 하며 그것들에게 “주체”로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하며, 또 동물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간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직하고 지켜서 각자의 정체성이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관계 맺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種)서로 간에, 이종(異種)간의 번역을 통해 “종(種) 횡단적 연대감”(a sense of cross-species solidarity)과 “새로운 종류의 횡단적 주체성”(a new kind of transversal subjectivity)을 만들어 내고 이는 결국 “지구를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자각”(a sense of transformative planetary agency)을 가지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²⁾.

전통적 의미의 번역학이나 번역담론은 물론이고 최근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번역테크놀로지(translation technology)가 가장 의미 있게 생태학적 번역의 전환에 개입할 지점이 바로 종(種) 횡단적 행위능력의 발굴과 자각에 있다고 크로닌은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지구

59)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0

60)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0

61)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1, 재인용

62)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6.

외에 거주 가능한 새로운 대륙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륙을 사유할 새로운 방식과 관점이 필요한 때다. 기후에는 국경이 없고,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생태학적 위기나 동식물적 다양성의 절멸에도 국경은 없다. 코로나에 따르면, 인간이 호주로 배를 띄우기 이전, 즉 45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다양한 동물들이 호주 대륙의 지배자였다.⁶³⁾ 인간이 정착하고 그 후 농업 혁명을 겪으며 큰 포유류의 절멸은 가속화 되었고, 많은 다른 동물들이 가축화(domestication) 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음식(고기, 우유, 계란), 원자재(가죽, 양모), 근력과 그리고 에너지”⁶⁴⁾를 인류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긴 역사는 인간을 위해 그들이 착취당하고 예속당하는 역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번역담론은 동물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침묵하게” 하는데 오히려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⁶⁵⁾ 코로나는 현대의 인류가 기업식 농업에서 벌어지는 “동물의 생존 조건과 체험”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도구적이며 기술관료적 언어”로 그들을 번역함으로써 윤리적으로 유리되고 격리되는 위험에 빠졌다고 비판한다.⁶⁶⁾ 반면, 코로나는 최근의 동물언어를 연구자를 인용하면서, 북미초원의 다람쥐와 동물들(prairie dogs)이 내는 소리를 그것들이 발화되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녹음하여 데이터화 한 다음, AI기술을 통해 해독하고 번역하는 번역기술(translation technology)을 옹호하며 소개한다. 이는 결국 우리 주변에서 살며 숨쉬고 심지어 유의미한 소통을 하며 생각하는 동물들이 존재함을 알리는 것이며, 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⁶⁷⁾ 해야 하는 우리의 종(種) 횡단적 능력의 제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⁶⁸⁾

4. 나오는 말 : 타자의 유형들과 통번역자 역할의 상관성

번역활동과 번역담론, 결국 번역체험과 활동에 대한 이론적 성찰로서의 번역학에서 타자의 등장과 그 유형을 아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번역사와 번역담론사에서 여러 굵직한 타자의 유형을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시대와 장소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고 다면적인 타자의 모습이 등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논의의 결말에 왔다고 해서 이런 확인과 관찰, 기술로부터 어떤 반박 불가능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타자의 유형을 거론하고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몇 직관을 가지 않을 수 없다.

타자는 번역/번역자를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그 타자가 폭력적일수록 통번역자는 그 만큼 수동적이고 피해자에 가깝다. 하지만 그 타자가 우월할수록 통번역자는 능동적 수용자가 되려고 하며 심지어 자기변형과 자기변신을 꿈꾸기도 한다. 경험과학으로서 번역학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대등한 비교와 접촉과 중재의 대상으로서 타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유형의 타자일수록, 이에 대응하는 통번역자는 타자에 대해 윤리적이거나 정치적 태도 전환을 취하기보다는 경험적 인식의 축적 대상으로 파악하고, 비교적 등거리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⁶⁹⁾

한편 윤리적 배려의 대상이 되는 타자가 문제가 될수록, 또 정치적 및 사회적 상황에서 발견

63)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3

64)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3-84

65)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4.

66)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4-85.

67)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6. Garber 재인용.

68)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86.

69) 각주 1에 등장하는 간추린 타자 유형의 흐름을 참조.

되는 타자가 등장할수록 통번역자에게 요구되고 요청되는 책임과 자각의 차원은 전례 없이 개방되고 확장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윤리적 차원의 타자일 경우 그 타자의 현재적 존속과 미래의 안녕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응대가 요구된다. 정치적/사회적 차원의 타자가 등장할 경우, 통번역자의 언어적 개입이나 참여는 단지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가 처한 현실이나 실재에 대한 생생한 묘사, 환기 그리고 고발로까지 이어진다. 통번역자는 타자의 언어를 번역함으로써 타자의 상황을 해석하며 타자의 취약한 입장에 침묵하지 못하게 된다. 어찌 보면, 이는 통번역자를 누가 고용하고,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하느냐의 문제와 별도로, 정치적 및 사회적 타자가 요구하는 권리상의 동등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현 논의 단계에서 윤리적 배려의 가장 진보적이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생태학적 타자로서의 동물 그리고 자연 그 자체는 통번역자에게는 그 만큼이나 폭 넓고 광범위한 인식의 전환, 즉 상호관련성의 통찰을 요구함은 물론이고, 그런 타자와 그것을 읽어내고 번역해내는 통번역자 사이에서 “존재론적 동등성”(ontological equality)⁷⁰⁾을 요구한다. 타자의 존재론적 변신만큼이나 읽어내는 주체의 존재론적 변신도 전환적이고 전회(轉回)적이다.

70)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13.

참고문헌

- 김윤경. (2010). 「코르테즈의 통역사, 말린체: ‘민족의 번역자’인가 ‘건국의 어머니’인가?」.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2), 57-82.
- 박소영. (2015). 「식민지 여성 통역사: 말린체와 배정자」. 『통번역학연구』, 19(1), 127-146.
- 벤야민, W. (2008). 「번역자의 과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최성만 역). 서울: 길. (Original work published: Benjamin, W. (1923/1980). Die Aufgabe des Übersetzers. In *Gesammelte Schriften*. Bd. IV/1. Frankfurt a. M.: Suhrkamp (pp. 9-21))
- 싱어, P. (1999). 『동물해방』.(김성한 역). 고양: 인간사랑. (Original work published: Singer, P. (1975). *Animal Liberation*. New York: Harper Colins Publishers)
- 아렌트, H.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김선옥 역). 파주: 한길사. (Original work published: Arendt, H. (1986). *Eichmann in Jerusalem: ein Bericht von der Banalität des Bösen*. Munchen, Zurich: Piper)
- 요나스, H. (1994).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이진우 역). 서울: 서광사. (Original work published: Jonas, H. (1979).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Suhrkamp)
- 윤성우. (2015). 「'윤리'개념과 '도덕' 개념의 구분을 통해서 본 번역윤리」. 『통역과 번역』, 17(3), 101-118.
- 크로닌, M. (2010). 『번역과 정체성』.(김용규·황혜령 역). 서울: 동인. (Original work published: Cronin, M. (2006). *Translation and ident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 Baker, M. (2008). Ethics of Renarration: Mona Baker Is Interviewed by Andrew Chesterman. *Cultus*, 1(1): 10-33.
- Baker, M. (2010).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War Zone: Narrated and Narrators. *The Translator*, 16(2), 197-222.
- Cronin, M. (2017). *Eco-translation: translation and ecology in the age of Anthropocene*. New York: Routledge.
- Drugan, J. (2017).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ractic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gaging with and beyond the professions. *The Translator*, 23(2), 126-142.
- Drugan, J. & Tipton, R. (2017). Translation, ethic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Translator*, 23(2), 119-125.
- Inghilleri, M. (2008). The ethical task of the translator in the geo-political arena: From Iraq to Guantánamo Bay. *Translation Studies*, 1(2), 212-223.
- Rafael, V. L. (2012). Translation and the US Empire: Counterinsurgency and the Resistance of Language. *The Translator*, 18(1), 1-22.
- Yun, S. W. & Lee, H. (2019, July). *How can we improve the code of ethics for translators?* Paper presented at the 9th Asia-Pacific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Forum (APTIF 9).

개념적 은유이론과 번역교육

인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탐구

2020 제 27차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김 성 우 (서울대학교)

1

한국사회 영어학습 방법론의 흐름

Grammar Translation Method (GTM): 문법번역식 교수법. 해당 언어의 문법을 분석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텍스트 해석에 연결하는 방식. 문어(written language)에 중심을 둠.

Audiolingual Approach: 청화식 교수법. 음성언어(spoken language)를 중심으로 듣고 따라하기(listen and repeat), 바꿔가며 말하기(substitution drill) 등을 주요 방법으로 사용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사소통적 교수법.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과 표현을 중심으로 'authentic tasks'를 중심으로 전개됨.

(자세한 것은 Richards & Rogers (2014) 참고)

2

한국사회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한계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의 번역 과업

이는 한국의 참고서 시장과 입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평가 상황에서 '영작문'도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압력

-> 앙상하고 기계적인 번역 과업의 반복

3

(일부) 대중의 번역에 대한 인식

“영어식 사고”

“미국식 사고”

“영어로 생각하기”

이들 표현은 '사고의 중요성'을 담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 '생각하는 영어'는 찾아보기 힘들

'사고의 차이'는 문화간 차이(intercultural differences)라기 보다는 네이티브 중심주의(native-speakerism)에 뿌리박고 있는 경우가 많음

4

문화간 차이를 인식하고 창조하는 활동으로서의 번역

번역이 단순히 단어 대 단어의 조응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문화(languaculture)가 다른 언문화로 변환되는 것임을 이해시키지 못함

언어와 문화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고 이를 번역과정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 필요

이 과정을 인도해 줄 이론적 프레임이 필요함

개념메타포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Lakoff & Johnson, 1980)

5

언어는 기본적으로 메타포적이다

또 하루 멀어져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김광석 <서른 즈음에> 중에서

6

사고실험: 외국인이 가사를 이해하는 과정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위 가사를 이해하는 상황을 가정

- ‘한국어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화자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구나. 마치 입안의 담배 연기가 대기로 흩어져 버리듯이!’
- ‘전에 배운 “멀어지다”는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게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거였는데, 시간에도 쓸 수 있는 거였네!’
- ‘기억이 “작기만 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뇌의 크기가 작다는 뜻은 아닐텐데. 채운다는 걸 보니, 기억을 일종의 용기 혹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 ‘다음 가사를 보니 기억만 채우고 비우는 게 아니라 “가슴”도 “비어 가는”구나. 하긴 나의 모국어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

7

재미난 메타포의 세계

1. 국물도 없는 집은 진짜 국물도 없다. 다신 안가.
2. ‘넌 이제 아웃(out)이야’라고 말하며 점퍼를 옷장 안(in)에 던져 넣었다.
3.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지.
4. 완전 차갑게 얼린 맥주가 요즘 핫해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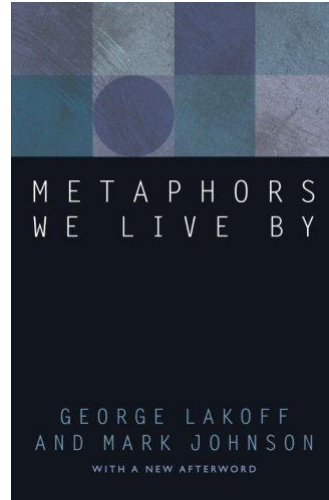
METAPHORS WE LIVE BY

1980년 George Lakoff와
Mark Johnson의 공저

인지언어학의 주요 분야 중
개념메타포(Conceptual
metaphor) 이론을 연 책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도서 10위 안에 오
름 (구글 스칼라 기준)

영어 메타포 표현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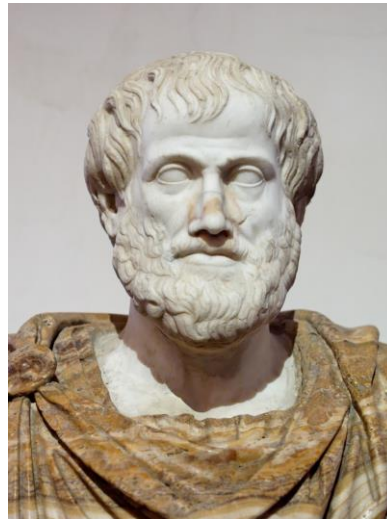
9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언어는 기본의미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근간으로 한다.

메타포는 언어의 장식이다.
따라서 메타포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소통할 수 있다.

-> 근대의 언어관(문자 그대로의
언어와 세계의 대응)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



10

METAPHORS WE LIVE BY

메타포는 언어의 장신구가 아닌 사고의 패턴

ARGUMENT IS WAR

Your claims are *indefensible*.

He *attacked every weak point* in my argument.

His criticisms were *right on target*.

I *demolished* his argument.

I've never *won* an argument with him.

You disagree? Okay, *shoot!*

If you use that *strategy*, he'll *wipe you out*.

He *shot down* all my arguments.

출처: Lakoff & Johnson. (1980). Conceptual metaphors in everyday language. The journal of philosophy, 77(8). p. 454

11

축구 한일전이 끝나면...

“일본 격파”

“용병술이 빛났다”

“새로운 전술전략의 승리”

“일본 열도 침몰”

.....

12

LAKOFF & JOHNSON의 주장

메타포는 장식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다.

세계는 우리의 몸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 즉 구체적인 신체경험의 대상들과 이것이 불가능한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인 추상적, 개념적 개체들은 대부분 메타포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간이다.

13

시간: 공간과 운동으로 표현

Just around the corner

We are running out of time.

We are fast approaching.

Christmas falls on Sunday this year.

Time flies.

시간은 직접 경험 불가능 ->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motion과 space 영역으로 표현됨.

시간: target domain / 공간: source domain

14

다양한 언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정 영역을 개념화한다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타포 패턴

각 언어 나름대로의 메타포 패턴

메타포 사용의 Universality와 Uniqueness를 파악할 필요 (Kövecses, 2006)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역 과업

15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과정으로서의 번역교육

번역과정을 개념화와 문화의 차이로 인식하는 바를 기계 번역 영역으로 확장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는 텍스트(e.g. 속담)를 인간과 여러 기계번역 서비스를 통해 번역하고 이들의 차이에 대해 토론

서로 다른 기계번역 결과를 놓고 왜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지 논의

이를 통해 인간과 기계가 번역 및 문화를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를 탐구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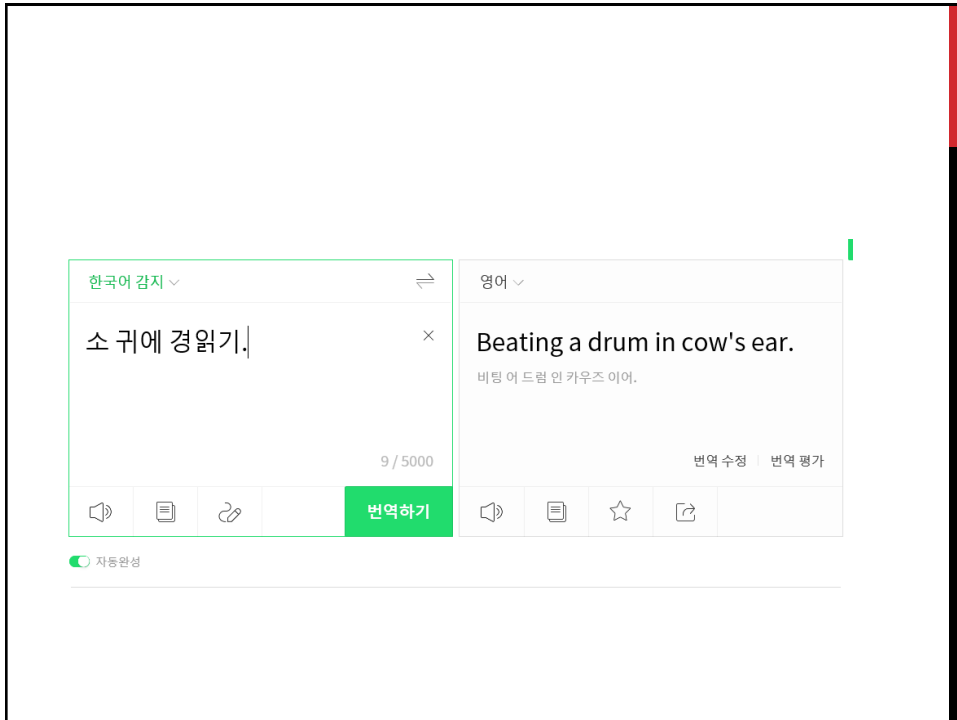
서로 다른 함의를 지니는 속담

The screenshot shows the Papago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 Papago logo and navigation links are visible. The main content area is a translation window. On the left, the source text is in Korean: "취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Every hole has stars flying out). Below it, the character count "14 / 5000" is shown. On the right, the target text is in English: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Below it, a subtitle reads "에브리 클라우드 헤즈 어 실버 라이닝."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At the bottom of the window, there are icons for voice playback, copy, and share, along with a green "번역하기" (Translate) button. A "자동완성" (Autocomplete) toggle is also present.

17

The screenshot shows the Google Translate interface. The source text on the left is in Korean: "취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Every hole has stars flying out). Below it, the phonetic transcription "jwigumeong-edo byeotdeul nal issda." is provided. The target text on the right is in English: "There is also sun in the rat hole." Below it, there are icons for voice playback and copy. At the bottom left, it says "Google 번역에서 열기" (Open in Google Translate), and at the bottom right, it says "사용자 의견" (User feedback).

18



19

결론

개념메타포 이론을 활용한 문화간 차이 인식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닌 ‘문화적 재창조(cultural re-creation)’,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으로서의 번역 활동

현 수준에서 기계번역의 가능성과 한계 인식 (Kim, 2019)

번역활동을 효율성(efficiency)과 정확성(accuracy)으로만 가늠하기 보다는 두 언어가 어떤 사회문화적 개념화에 기반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기회로 활용

이를 통해 번역과정이 담고 있는 풍부한 문화적 상상력을 드러냄

중고교 교육부터 문화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인문학적 번역교육’ 실시

20

REFERENCES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im, S. W. (2019). Playing with machine translation in language classroom: Affordances and constraint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2(2), 9-28.

Kövecses, Z. (2006).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and vari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C., & Rodgers, T. S. (2014).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



22

통역교육을 위한 연설문 유형 분류

한국통역번역학회 2020 봄 학술대회
홍설영

1

목차

1. 연구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설문의 정의와 특징
2. 선행연구 분석
연설문 유형분류: 수사학적, 텍스트언어학적 고찰
3. 연구 방법 및 결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지도자 연설
분석 결과

2

연구의 필요성

- ▶ 통번역대학원 통역 수업의 관행/경향
연설문 텍스트의 적극적인 활용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함
대중 연설을 하는 지도자를 연사로 상정함
- ▶ 연설문의 정의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담화" (최중윤, 2018)
/"청중을 대상으로 한 사람의 화자가 사실적인 정보나 지식
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통해 여러 사람의 청중을 설득
하는 행위로서 하나의 말하기 형태(김현국, 2001)
- ▶ 연설문의 특징
연설문은 웅변의 원고(양태종, 2003)
대통령 연설: 정권의 가치지향 및 정책우선순위를 비롯한
국정의 목표/철학 내포함(이창길, 2010)

3

연설문 유형분류

- ▶ 수사학적 유형분류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1995)의 연설유형 3분류
: 의회연설(미래), 식장연설(현재), 법정연설(과거)
→ 시간적, 상황적 분류기준
- ▶ 텍스트언어학적 유형분류
K. Brinker(1985)
제보텍스트(informationstexte)
호소텍스트(appelltexte)
책무텍스트(obligationstexte)
접촉텍스트(kontakttexte)
선언텍스트(deklarationstexte)

4

연구방법

▶ 분석 데이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재인 정부의 지도자(대통령, 총리, 총리) 연설

기간: 2017, 2018, 2019년

▶ 분석대상

연설 유형

연설 주제

연설 시점

5

분석결과

□ **축사**

문화일보 문화미래리포트 2019 축사 (2019. 6. 26 / 총리)
 2019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축사 (2019. 6. 26 / 총리)
 2019 경향포럼 축사 (2019. 6. 19 / 총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축사 (2019. 6. 19 / 장관)
 2019 해경 氣UP 포럼 축사 (2019. 6. 17 / 총리)
 제51회 국가조찬기도회 축사 (2019. 6. 17 / 총리)
 스웨덴 노르헨 재단 방문 축사 (2019. 6. 15 / 대통령)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 축사 (2019. 6. 5 / 대통령)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축사 (2019. 5. 14 / 대통령)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축사 2019. 4. 19 (2019. 4. 29 / 대통령)

□ **영상축사**

2019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2019. 6. 26 / 총리)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 영상축사 (2019. 6. 26 / 총리)
 김대중평화캠프 평화콘서트 영상축사 (2019. 6. 1 / 총리)
 평택시민 50만 기념행사 영상축사 (2019. 5. 31 / 총리)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영상축사 (2019. 5. 27 / 총리)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 영상축사 (2019. 5. 7 / 총리)
 '판문점 선언' 1주년 영상메세지 (2019. 4. 27 / 대통령)
 '여성친화도시 10주년 기념 전국포럼' 익산시 주최 행사 영상축사 (2019. 3. 28 / 장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원7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 (2019. 3. 21 / 총리)
 제16회 세계화상대회 영상 축사 (2017. 10. 25 / 대통령)

6

분석결과

□ 개회사

연합뉴스 2019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2019. 6. 27 / 총리)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개회식 축사 (2019. 6. 3 / 총리)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움 개회사 (2019. 1. 16 / 총리)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 (2019. 1. 9 / 장관)
 제41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 (2018. 12. 14 / 총리)
 2018 재외공관장회의 개회사 (2018. 12. 10 / 총리)
 제 23회 소비자의 날 개회식 격려사 (2018. 12. 3 / 총리)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 개회사 (2018. 11. 20 / 장관)
 2018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개회식 서면 축사 (2018. 11. 1 / 장관)
 제53회 전국여성대회 개회식 축사 (2018. 10. 31 / 총리)

□ 추모사

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 조사, 국립서울현충원 (2019. 6. 14 / 총리)
 故 이희호 여사 영결예배 조사, 창천교회 (2019. 6. 14 / 총리)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2019. 6. 6 / 대통령)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사 (2019. 5. 23 / 총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추모사 (2019. 4. 21 / 대통령)
 4.16 세월호 추모행사 추도사 (2019. 4. 16 / 장관)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사 (2019. 4. 3 / 총리)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의 순직을 추모합니다 (2019. 2. 7 / 대통령)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사 (2018. 11. 22 / 총리)
 히말라야 원정대를 추모합니다 (2018. 10. 14 / 대통령)

7

분석결과

□ 취임사

제40대 기여철 장관 취임사 (2019. 4. 8 / 장관)
 박양우 장관 취임식 (2019. 4. 3 / 장관)
 취임사 (2018. 12. 11 / 장관)
 제46대 정경두 국방부장관 취임사 (2018. 9. 21 /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2017. 7. 7 /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2017. 6. 15 / 총리)
 조현, 제2차관 취임사 (2017. 6. 2 / 장관)
 제24대 통일부 장관 취임사 (2017. 6. 1 / 장관)

□ 이임사

제47, 48대 유근찬 모총장 이취임식 훈시 (2019. 4. 16 / 장관)
 제36, 37대 공관참모총장 이취임식 훈시 (2019. 4. 16 / 장관)
 제39대 조명균 장관 이임사 (2019. 4. 8 / 장관)
 기획재정부 부총리 이임사 (2017. 6. 12 / 총리)
 안중기, 제2차관 이임사 (2017. 6. 1 / 장관)
 합창의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 축사 (2017. 8. 20 / 대통령)

□ 신년사

2019년 한국공화헌원 신년하례식 인사말씀 (2019. 1. 28 / 총리)
 2019년 사회적경제 신년회 인사말씀 (2019. 1. 23 / 총리)
 2019년 방송통신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19. 1. 21 / 총리)
 2019 여중·여고 신년 이사회 부총리 인사말씀 (2019. 1. 18 / 장관)
 2019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19. 1. 9 / 총리)
 2019년 신년사 (2019. 1. 2 / 장관)
 2019년 대통령 신년사 (2019. 1. 1 / 대통령)
 국무총리 신년사 (2018. 12. 31 / 총리)
 2018 무술년 신년인사회 인사말 (2018. 1. 2 / 대통령)
 2018 대통령 신년사 (2018. 1. 1 / 대통령)

8

분석결과

□ 송년사

군정위. 중감위 초청 송년행사 인사 (2018. 12. 4 / 장관)
군정위. 중감위 초청 송년행사 만찬사 (2017. 12. 6 / 장관)

□ 삼일절/광복절 연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 (2019. 3. 1 / 대통령)
이화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2019. 3. 1 / 장관)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8. 8. 15 / 대통령)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격려사 (2018. 7. 3 / 대통령)
3.1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재단 창설 발기인 총회 영상 격려사 (2017. 12. 6 / 총리)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7. 8. 15 / 대통령)

□ 민주화운동 연설- 기념사

6.10 민주항쟁 기념사 (2019. 6. 10 / 대통령)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2019. 5. 18 / 대통령)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2019. 4. 3 / 대통령)
제59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 기념사 (2019. 3. 8 / 총리)
제59주년 2. 28 민주운동 기념사 (2019. 2. 28 / 총리)
6. 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 (2018. 6. 10 / 대통령)
제38주년 5. 18민주화운동 기념사 (2018. 5. 18 / 총리)

9

분석결과

□ 오만찬 예식연설

스웨덴 국민 만찬 답사 (2019. 6. 14 / 대통령)
베르겐 시장 주최 오찬 답사 (2019. 6. 13 / 대통령)
노르웨이 국왕 주최 국민 만찬 답사 (2019. 6. 12 / 대통령)
노르웨이 정부 주최 오찬 답사 (2019. 6. 12 / 대통령)
핀란드 니니스퇴 대통령 주최 국민 만찬 답사 (2019. 6. 10 / 대통령)
헬싱키 시장 주최 오찬 답사 (2019. 6. 10 / 대통령)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오찬간담회 (2019. 5. 6 / 총리)
카자흐스탄 국민오찬사 (2019. 4. 22 /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만찬 답사 (2019. 4. 17 / 대통령)
벨기에 국왕 내외를 위한 국민만찬 만찬사 (2019. 3. 26 / 대통령)

□ 모두발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발언 (2019. 7. 2 / 대통령)
제 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19. 7. 2 / 대통령)
한-미국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2019. 6. 30 / 대통령)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2019. 6. 24 /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임원 초청 오찬 모두발언 (2019. 6. 21 / 대통령)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 6. 20 / 대통령)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모두발언 (2019. 6. 7 /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모두발언 (2019. 6. 4 /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19. 6. 3 / 대통령)
형가리 우리 국민 탑승 유람선 침몰 긴급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 5. 30 / 대통령)

10

분석결과

□ 업무보고

-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 (2019. 4. 23 / 장관)
-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 (2019. 4. 17 / 장관)
-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 12. 20 / 대통령)
- 2019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 12. 20 / 대통령)
- 2019 환경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 12. 18 / 대통령)
- 2019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 12. 18 / 대통령)
- 2019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2018. 12. 18 / 대통령)

□ 격려사

- 재일동포 만찬 간담회 격려사 (2019. 6. 27 / 대통령)
- 에릭슨 방문, e스포츠 경기 격려 발언 (2019. 6. 14 / 대통령)
- 국방보안 컨퍼런스 격려사 (2019. 6. 13 / 장관)
-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한-핀란드 해커톤' 행사 문재인 대통령 격려사 (2019. 6. 11 / 대통령)
-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 격려사 (2019. 5. 30 / 총리)
-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격려사 (2019. 5. 24 / 총리)
- 2019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격려사 (2019. 4. 22 / 총리)
- 청년 희망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 격려사 (2019. 4. 12 / 총리)
- 2019 농축협 조합장 포럼 격려사 (2019. 4. 2 / 총리)
-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 격려사 (2019. 3. 20 / 총리)

11

분석결과

□ 기념사

- 제69주년 6.25전쟁 기념사 (2019. 6. 25 / 총리)
- 2019 건설의 날 기념사 (2019. 6. 20 / 총리)
- 스웨덴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 기념사 (2019. 6. 15 / 대통령)
- 6.10 민주항쟁 기념사 (2019. 6. 10 / 대통령)
- 제24회 바다의 날 기념사 (2019. 5. 31 / 총리)
- 제54회 발명의 날 기념사 (2019. 5. 27 / 총리)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사 (2019. 5. 20 / 장관)
- 제7회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기념사 (2019. 5. 20 / 장관)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 (2019. 5. 18 / 대통령)
- 스승의 날 기념사 (2019. 5. 15 / 장관)

□ 기초연설

- 2019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기초연설 (2019. 6. 19 / 장관)
-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기초연설 (2019. 6. 14 / 대통령)
- 오슬로 포럼 기초연설 "국민을 위한 평화" (2019. 6. 12 / 대통령)
-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혁신 성장 포럼' 문재인 대통령 기초연설 (2019. 6. 11 / 대통령)
- 2019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초연설 (2019. 3. 28 / 총리)
-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기초연설 (2019. 3. 15 / 대통령)
-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기초연설 (2019. 2. 25 / 장관)
- 한-모로코 비즈니스 포럼 기초연설 (2018. 12. 21 / 총리)
- 보아오포럼 2018 서울회의의 기초연설 (2018. 11. 20 / 총리)
- 문재인 대통령, P4G정상회의의 기초연설 (2018. 10. 20 / 대통령)

12

분석결과

□ 기자회견/언론발표

- 한-스웨덴 공동기자회견 (2019. 6. 15 / 대통령)
- 한-노르웨이 공동기자회견 (2019. 6. 13 / 대통령)
- 한-핀란드 공동언론발표 (2019. 6. 10 / 대통령)
- 한-칠레 공동언론발표 (2019. 4. 29 / 대통령)
- 한-카자흐스탄 공동언론발표 (2019. 4. 22 / 대통령)
-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 (2019. 4. 19 / 대통령)
- 한-투르크메니스탄 공동언론발표 (2019. 4. 17 / 대통령)
- 한-캄보디아 공동언론발표문 (2019. 3. 15 / 대통령)
- 한-인도네시아 공동언론발표 (2018. 9. 10 / 대통령)
- 한-인도 공동언론발표 (2019. 2. 22 / 대통령)

□ 송별사

- 오사카를 떠나며 (2019. 6. 29 / 대통령)
- 스웨덴을 떠나며 (2019. 6. 16 / 대통령)
- 노르웨이를 떠나며 (2019. 6. 13 / 대통령)
- 핀란드를 떠나며 (2019. 6. 11 / 대통령)
- 카자흐스탄을 떠나며 (2019. 4. 23 / 대통령)
-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며 (2019. 4. 21 / 대통령)
-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며 (2019. 4. 18 / 대통령)
- 캄보디아를 떠나며 (2019. 3. 16 / 대통령)
- 말레이시아를 떠나며 (2019. 3. 14 / 대통령)
- 브루나이를 떠나며 (2019. 3. 12 / 대통령)

13

분석결과

□ 성명서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님의 국제올림픽 (IOC) 위원 선출을 국민들과 함께... (2019. 6. 27 / 대통령)
- 멋지게 놓고 나온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2019. 6. 16 / 대통령)
- 이희호 여사님을 추모합니다 (2019. 6. 11 / 대통령)
- 봉준호 감독님의 제72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2019. 5. 26 / 대통령)
- 작은 행동을 모아 큰 불행을 막아내는, 우리 국민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9. 5. 3 / 대통령)
- 박필근 할머니를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5. 2 / 대통령)
-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2019. 5. 1 / 대통령)
-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19. 4. 16 / 대통령)
-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미 정상회담을 잘 마쳤습니다 (2019. 4. 11 / 대통령)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에 대한 문제인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 (2019. 3. 16 / 대통령)

14

참고문헌

- 김현국(2001) 연설문의 문체 연구: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23, 243-297.
- 양태종(2003) 키케로의 연설문 분석: 베레스를 고발하는 1차 연설의 착상을 중심으로. 독
일어문학 23, 325-345.
- 이창길(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
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44(3), 165-189.
- 최종윤(2015) 국어 교과서 연설문 텍스트의 수사적 분석 - 유형, 주제, 대상, 어휘,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 화법연구 40, 129-156.
- 황창호·이혁우·임동완 (2015)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 - 연설문
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29(4), 27-
50.
- Aristotle. (1995) Aristotle's "Art of Rhetoric".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nker, K. (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Erich Schmidt Verlag.

포스트휴먼 시대의 통역사 교육: 테크네인문학적 접근 가능성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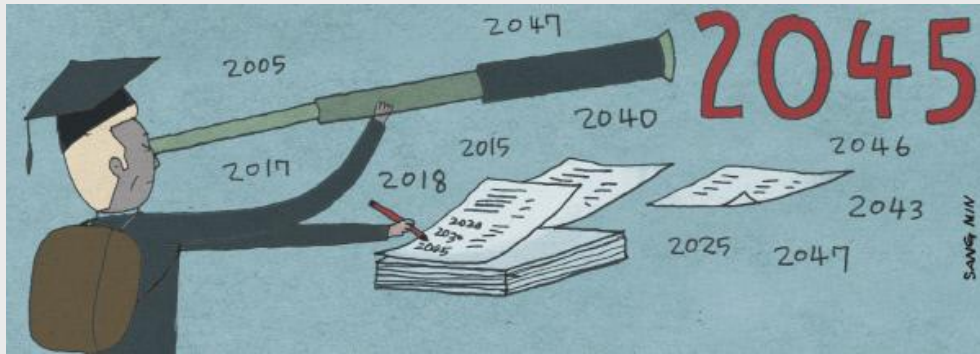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임세인

포스트휴먼

포스트(post) + 인간(human)

-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 및 현재의 인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새로운 인간(이다운, 2018: 261)
- 신체를 가진 존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나 절대적인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헤일스(Hayles), 199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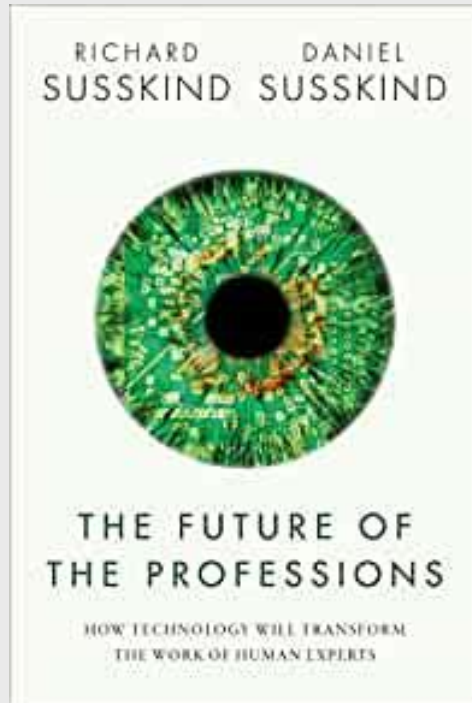
포스트휴먼 시대



- 2045년에는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인류의 육체적, 지적 능력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점, 즉 특이점(singularity)이 올 것
- 특이점 이후에는 포스트휴먼 시대 진입

(커즈와일(Kurzweil), 2005)

전문직의 해체



“전문직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매우 익숙한 미래다. 지금의 방식이 효율성만 높아진 채 유지된다. 이 경우, 전문가는 19세기 중반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계속 일할 것이다. 다만 반복되는 행동은 고도로 표준화·체계화되고, 낡은 작업방식은 정비될 것이다.

두 번째 미래는 매우 다른 얘기다. 변혁이 일어나 전문가가 지니는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다.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그 성능이 점점 개선돼 전문가의 기존 업무는 대부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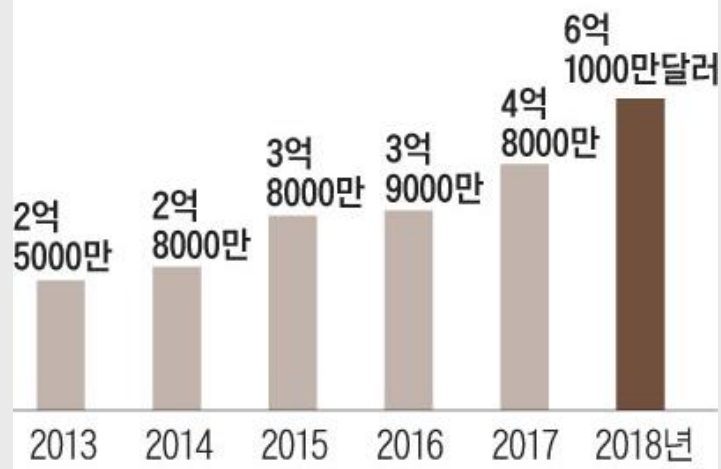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미래가 동시에 실현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미래에 가까워져 전문성은 새롭고 더 나은 방법으로 사회에서 공유되며, 전문직은 끊임없이 해체될 것이다.”

(서스킨드와서스킨드(Susskind & Susskind),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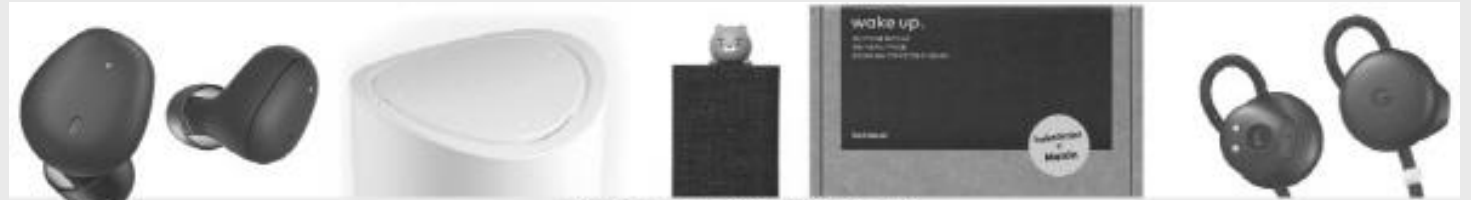
통번역의 미래

(1) AI 통번역 서비스 전쟁

글로벌 자동 통번역 시장 규모



자료=TechNavio·유진투자증권



국내외 주요 통번역 서비스 현황

자료 : 각 사

업체	구글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컴퓨터	시스트란
번역기	구글(Google) 번역	파파고	카카오아이(i) 번역	말랑말랑 지니톡	PNMT(엔진)
서비스 형태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카메라, 이어폰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스피커, 이어폰 (출시 예정)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출시 예정, 인공지능 스피커 적용 예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SW)	솔루션 공급 (인공지능 스피커 등)
출시 시기	2007년	2016년 8월	2017년 9월	2016년 7월	2014년 5월 (CSL 인수)
지원 언어	103개	14개	4개 (일본어·중국어 추가 예정)	8개	97개

(2) 직업 전망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미래보고서(2015)>

2030년까지 신기술 개발에 따라 소멸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통번역 전문가 제시

VS

<한국직업전망(2017)>

통역사와 번역가의 향후 직군별 고용 추세는
'증가', '다소 증가', '유지', '다소 감소', '감소' 중
'유지'군에 포함



통번역시장의 불확실성 팽배(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대학원 통역 교육 현황

	입문	심화	실습	틀	기타
	순차/동시통역, 문장구역	전문순차/동시	프랙티컴, 모의회의 등	CAT 등	
A	○	○	○	△	진로세미나
B	○	○	○	△	통번역교수법
C	○	○	○	X	IT학, 인공지능학 등
D	○	○	○	○	국제관계학, 회계학 등
E	○	○	○	X	
F	○	X	○	X	설교통역
G	○	○	○	△	
H	○	○	○	△	

- 대부분의 통번역 석사과정은 통역 입문 과목과 심화 과목,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감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실습수업 위주로 구성
-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선택과목으로 CAT 틀, 포스트에디팅 등의 수업 제공(통역 준비과정에서 용어DB 관리를 돕는 등 유용하게 사용 가능)
- A학교: 진로개발세미나 과목을 통해 정규과목으로 진로 교육 실시
- C학교: IT학 개론, 인공지능학 개론, 금융공학의 기초, 국제정치/경제 등 전공과목 이외에 교양과목 개설
- D통번역과정: 국제관계학, 경제학, 회계학 등 국제학 관련 수업 필수과목으로 제공

연구문제

전문직의 해체를 야기하며 새로운 역량, 자질, 능력과 역할을 요구하게 될 포스트휴먼 시대에 예비 통역사를 대비시키기 위해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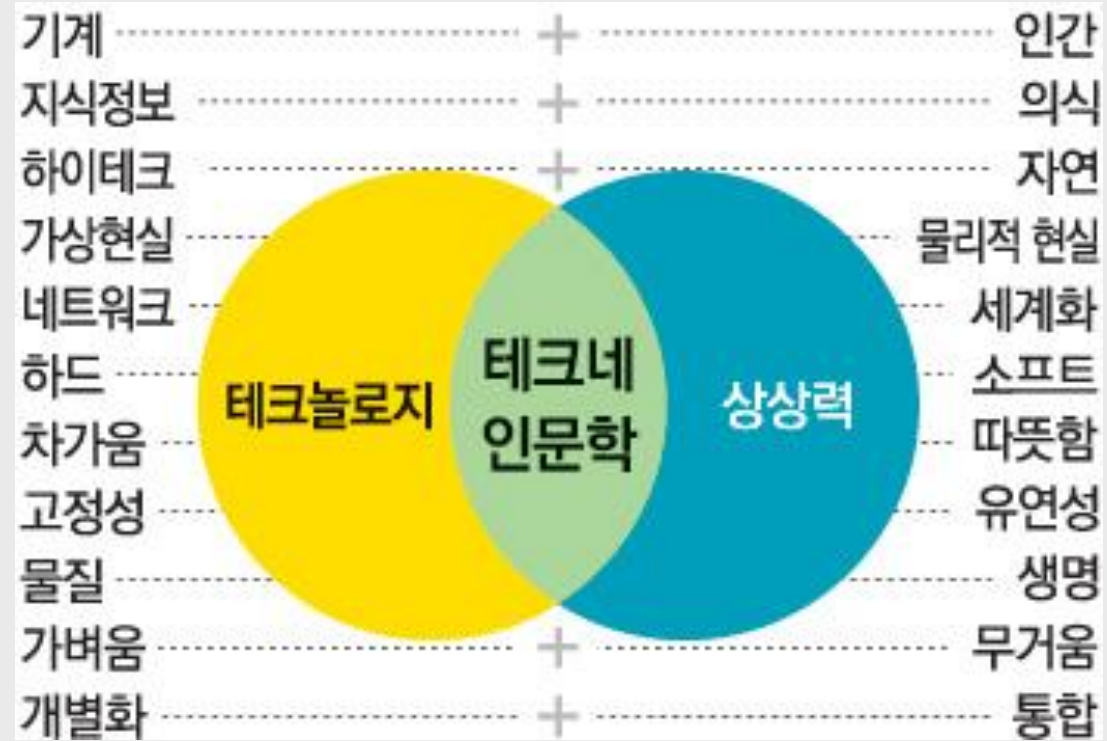
테크네인문학

- 인문학적 상상력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는 실천적 인문학(김연희, 2012)
- 인문학적 가치를 토대로 기술 포용 & 융합 추구



◦ 통역 스킬, 즉 기능성만으로는 인간 통역사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테크네인문학이 통역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테크네인문학의 특징



통역 교육에서의 테크네인문학 활용 방안

(1) 인문학적 상상력*

인간 통역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과 고유의 가치에 집중

- ⇒ 의사소통 능력(언어적+비언어적)
- ⇒ 집단지성과 협업
- ⇒ 문제해결능력
- ⇒ 윤리적 사고

*인간의 바람직한 인성을 토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생각의 힘'(김경철,오아름과박혜정,2019:2)

(2) 융합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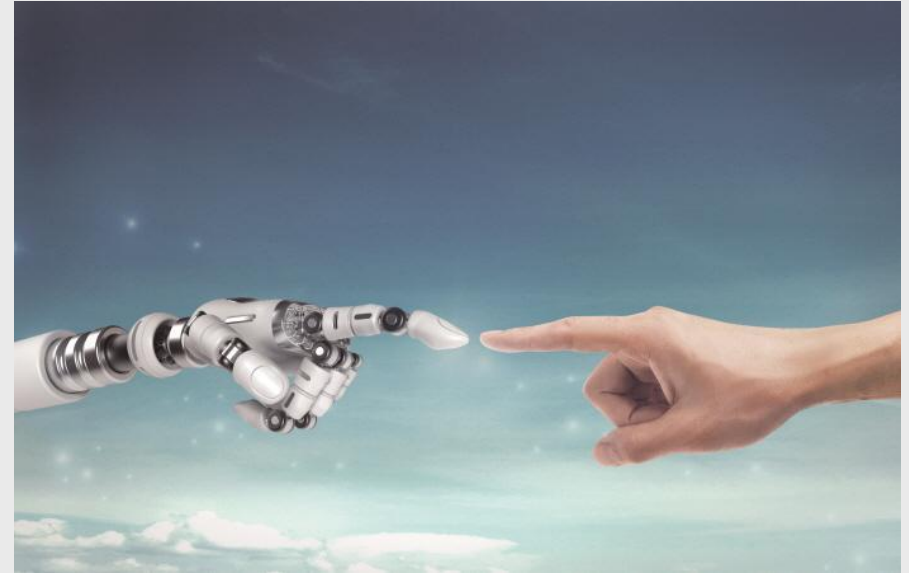
융합의 각 주체 학문들이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의 문제 해결

⇒ 전문성 강화(언어지식, 통역 스킬, 주제지식)

⇒ 기술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 융합 역량 확보

통번역대학원의 역할

- 통역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연계/복수전공제도 활성화
- 조기 진로지도
- 기술 교육
- 윤리 교육
- 졸업생 보수/재보수 교육
- 워크숍



참고문헌

- 김경철, 오아름, & 박혜정. (2019). '인문학적 상상력'에 관한 연구 현황을 통해 본유아교육 분야의 시사점.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3), 41-50.
- 김연희. (2012).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 테크네인문학.' Retrieved from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8%B0%EC%88%A0%EA%B3%BC-%EC%9D%B8%EB%AC%B8%ED%95%99%EC%9D%98-%EC%9C%B5%ED%95%A9-%ED%85%8C%ED%81%AC%EB%84%A4%EC%9D%B8%EB%AC%B8%ED%95%99/>
-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 이다운. (2018). 포스트휴먼 시대의 텔레비전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4(48), 261-290.
- Hayles, N. (1999). Katherine: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 3.
- Kurzweil, R. (2005).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Penguin.
- Susskind, R. E., & Susskind, D. (2015).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감사합니다.

영화 <기생충> 자막의 문화소 번역 연구

박건영·남희지·임소연
(한국외국어대학교)

1

연구 목적 및 배경

- <기생충>은 국내외 영화제에서 총 176개 상을 수상 (아카데미 4개 포함 해외 155개, 국내 21개)해 한국 영화로서 최다 수상 기록
- 2019년 북미에서 개봉한 역대 외국어 영화 중 최고 매출 기록
- 제시카 징글(Jessica Jingle)의 인기 등 문화적 현상, 봉준호의 장르화



2

연구 목적 및 배경

- <기생충>의 세계적 인기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와 영어 자막에 기인
-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적 요소를 해외 관객이 이질감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번역했다는 평가
- <기생충> 속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거시적/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함



3

이론적 배경: 문화소

- 프랑코 아이헬라(Franco Aixelá, 1996): 원문을 도착어로 번역하였으나 해당 개념이 목표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원문과 특정 목표 문화 사이에 문화소라는 개념이 탄생
- 네데가르드-라센(Nedergaard-Larsen, 1993): 지리, 역사, 사회, 문화의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 뉴마크(Newmark, 1988): 자연, 물질문화나 인공물, 사회 문화, 기관과 관습 및 절차-개념, 몸짓과 습관으로 분류
- 조재범(2014): 한국 영화의 영어 자막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고유명사군, 문화 특수어군, 사회적 특수어군, 관용어군의 4가지로 분류

=> 출발어 문화의 고유한 요소라는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 측면에서는 물질적 항목과 정신적 관습 및 개념을 포괄

4

이론적 배경: 문화소 번역 전략

- 페데르센(Pedersen, 2005): TV 드라마 자막의 ECR, 언어외적 문화지시체로 정의한 문화소 번역 전략을 13개의 세분화된 전략으로 분류
- 프랑코 아이헬라(1996): 번역 전략을 크게 보존(conservation)과 대체(substitution)로 분류
- 데이비스(Davies, 2003):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 속 영국적 문화소 번역 전략
 - 미시적 차원: 다양한 전략으로 번역
 - 거시적 차원: 각 요소가 전체 텍스트의 구성에 기여하며 전반적인 효과
- 몰리나 외(Molina, et al., 2002): 번역 방법(method), 전략(strategy), 기법(technique)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
- 조재범(2014): 프랑코 아이헬라(1996)를 참고해 한국 영화 7편의 문화소 번역 전략을 크게 보존, 대체, 생략으로 나누고, 페데르센(2011)의 번역 전략을 참고한 혼용 전략 모델을 제안

5

연구방법

1. 한글 대사와 영어자막 전사 후 문화소 추출
2.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문화소 범주 확정
 - : 신조어, 비속어, 속담, 관용적 표현의 경우 목표 문화권에도 상응하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제외
3. 선행 연구의 문화소 분류를 참고, 변형하여 고유명사, 자연물, 생활문화 관련어휘, 사회문화 관련어휘, 역사 관련어휘의 5개 범주로 분류
4. 범주별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 미시적 전략: 프랑코 아이헬라(1996)의 '보존'과 '대체' 번역 전략을 전체적인 틀로 하되 하위범주는 해당 텍스트 문화소에 맞게 설정
 - 거시적 전략: 데이비스(2003)와 몰리나 외(2002)의 연구에 착안해 번역가와 감독의 협업 과정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을 거시적 전략으로 규정하고 번역가와 감독의 인터뷰 기사와 영상, 번역가가 연사로 참여한 심포지엄 학회 자료 등 수집 검토

6

문화소 범주 분류

상위 범주	세부 요소
고유명사	인명
	상표명
	기관명
자연물	생물
	무생물
생활문화 관련어휘	음식
	주거환경
사회문화 관련어휘	직업
	제도
	정치
역사 관련어휘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

7

문화소 번역 전략 분류

상위 범주	세부 전략
보존	음차
	직역
대체	일반화(상위개념)
	구체화(설명)
	대체
	축소

8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거시적 전략

- 번역가 달시 파켓은 <기생충>은 난도가 높은 문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다른 영화보다 많이 걸렸다고 밝힘
- 또한 봉 감독이 영어자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자막 내용에 대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해서 감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화소에 대한 번역 전략을 결정했다고 말함
- 봉 감독 역시 어려운 문화소를 어떻게 번역할지 번역가와 함께 고민했다고 밝히고, 한국적 표현이라고 해서 번역에 특별히 제한성을 두지 않고 핵심 맥락을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의외로 외국 관객들이 이를 잘 수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함
- <기생충>의 영어자막=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온 봉 감독과 번역가 파켓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
- 즉, 해외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을 원했던 감독과 '일반화', '보편화'라는 특성이 강한 자막을 만들어 낸 번역가의 소통이 곧 거시적 차원의 번역 전략이며 미시적 전략을 포괄하는 큰 틀

9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이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Wow, does Oxford have a major in document forgery?	대체	고유명사

10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망할 굽둥이들.	Damn <u>stink bugs</u> .	대체	자연물

11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Listen, do you know how to make <u>ram-don</u> ?	대체	생활문화

12

문화소 번역 전략 분석: 미시적 전략

ST	TT	Strategy	Category
역시 <u>중복</u> 개그의 지존. 사랑해 여보!	No one can <u>imitate North</u> <u>Korean news anchors</u> like you!	구체화	사회문화

13

분석 결과

- 영어 자막 속 문화소가 미시적 차원에서 음차, 직역부터 대체, 축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번역
- 번역 전략의 다양성은 거시적 차원의 자국화 전략, 즉 일반화와 보편화를 통해 해외 관객의 이해를 돕고자 한 감독과 번역가의 협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관련 인터뷰 및 기사 등을 통해 확인
- 한국만의 문화적 정서와 내포된 의미를 번역으로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사례도 발견
(ex: 대만 카스텔라, 기사식당)
- 전반적인 자국화 전략을 통해 해외 관객의 이해를 용이하게 했으나, 원천어 문화의 이국적 요소를 목표어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14

논의 및 향후 연구과제

- 한영 자막 번역에 대해 감독과 번역가가 협업한 사례
- 거시적 전략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개별적 미시적 전략 요소가 존재하지만 큰 거시적 맥락에서 고찰할 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번역 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님
- 해외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자국화 전략이 몇몇 문화소의 경우 내포된 한국 고유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함
- 사극 중심의 기존 한영 자막 연구 흐름에 새로운 방향을 제안

15

참고문헌

- 김수연. (2018). 『사극 영화 문화소의 한영 자막 번역 전략 : <관상>, <역린>, <명량> 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연주. (2016). 『권력과 서법체계 - 한국 영상 영화 자막 번역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어(相關語)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7.
- 장민호. (2004). 『번역과 언어의 경계: 영화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6(2), 97-125.
- 조재범. (2009). 『영화 "왕의 남자" 자막번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 전략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7(2), 215-235.
- 조재범. (2014).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파켓, 달시. (2019. 09. 21). *글로벌 문화소통과 통번역*. 2019 한국통역번역학회-한국외대 언어문화소통연구소 주최 공동학술대회발표 자료, 서울, 대한민국.
- Aixelá, J.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8, 52-78.
- Božović, P. (2019). How should culture be rendered in subtitling and dubbing? A reception study on preferences and attitudes of end-users. *Babel*, (1), 81-95.
- Davies, E. E. (2003). A goblin or a dirty nose? The treatment of culture-specific references in translations of the Harry Potter books. *The Translator*, 9(1), 65-100.
- Díaz-Cintas, J., & Remael, A.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Routledge.
- Molina, L., & Hurtado Albir, A. (2002). Translation techniques revisited: A dynamic and functionalist approach. *Meta: Journal des Traducteurs/Meta: Translators' Journal*, 47(4), 498-512.
- Nødegård-Larsen, B. (1993). Culture-bound problems in subtitling. *Perspectives*, 1(2), 207-240.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Vol. 66). New York: Prentice Hall.
- Pekersen, J. (2005, May). How is culture rendered in subtitles. In *MuTra 2005—Challenges of Multidimensional Translation: Conference Proceedings* (pp. 1-18).
- Ramière, N. (2006). Reaching a foreign audience: Cultural transfers in audiovisual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6, 152-166.
- <인터넷 자료>
- 김정. (2019. 10. 11.). '영화광이 만든 세계 보편적 영화'. Retrieved December 15, 2019, from 중앙일보 http://www.koradaily.com/news/read.asp?art_id=7676214
- 나원정. (2019. 6. 1.). '“기생충” 짜파구리·종북개그...간영화제서 뺄행 퇴진 비결'. Retrieved November 26, 2019, from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85510>
- 뉴스스. (2020. 2. 10.). [기생충 4관왕] <기생충>에 작품상...아카데미, 변화를 택했다'. Retrieved February 25, 2020, from http://www.news.com/view/id=NISX20200210_000091408&cID=10101&spID=10100
- 서경민. (2020. 1. 6.). '한국 최초 골든글로브 <기생충> - 이제 아카데미다'. Retrieved January 7, 2020, from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923295.html
- 서경리. (2019. 7.). '영화 속 캐릭터에 가장 가깝게 표현하는 게 나의 일'. Retrieved December 15, 2019, from Topclass Chosun <http://topclass.chosun.com/board/view.asp?catecode=Q&tmu=201907100012>
- 신규진. (2019. 5. 30.). '기생충 7번이나 본 이 남자 칸 관객들에 한국말 '맛' 전했다'. Retrieved November 26, 2019, from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20427>
- 신진아. (2019. 11. 4.). '영화 "기생충" 복에서 로형 속 놀라운 흥형성적 '주목''. Retrieved December 8, 2019, fr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040836365335>
- 양혜연. (2019. 8. 26.). '다른 언어에 담아내는 번역가 달시 파켓'. Retrieved December 15, 2019, from 더네이버 <https://www.imagazinekorea.com/neighbor/view.asp?no=6643>
- JTBC 뉴스. (2019. 6. 15.). '기생충 800만 돌파...[디테일 번역에 해외서도 관심] [비디오파일]'. Retrieved December 6,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DM7oKl9h3KY>
- KBS 더 라이브. (2019. 6. 4.). 오늘밤 김재동, 기생충 '짜파구리' 뭐라고 번역했을까? 번역가 달시파켓 매력에 풍덩~ [비디오파일]. Retrieved December 2, 2019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uJ8SHrKwag>
- Zack Sharf. (2019. 5. 25.). 'Cannes Jury Says Awarding Bong Joon-ho's 'Parasite' the Palme d'Or Was Unanimous Decision'. Retrieved December 8, 2019, from Indiewire <https://www.indiewire.com/2019/05/cannes-jury-parasite-palme-dor-unanimous-decision-1202144858/>

16

코퍼스를 활용한 표층결속기제 번역 교육 연구

-한중 기술번역을 중심으로

목차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참고문헌

연구배경

- ✓ 통번역 대학원생의 과제에서 표층결속 기제의 적절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오류 자주 발생
- ✓ 통번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표층결속 기제 번역 교육에 대한 연구 부족

연구목적

- ✓연구문제1: 한중 기술번역 과정의 표층결속기제에 대한 교육에서 코퍼스 활용의 타당성 논의
- ✓연구문제2: 표층결속기제 교육을 위한 코퍼스 설계
- ✓연구문제3: 코퍼스를 활용한 표층결속기제 번역 교육 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코퍼스기반 번역 교육 및 표층결속기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표층결속기제의 번역교육에서 코퍼스 활용의 타당성 논의
- 코퍼스 구축 및 표층결속기제 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코퍼스규모, 종류, 구성 설계
- 코퍼스 기반 번역 연구 및 표층결속 기제 교육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표층결속기제 번역 교육 방안 제시

연구결과1-표층결속기제 번역 교육에서 코퍼스 활용의 적절성

✓코퍼스기반 번역 교육

- 용도: 번역 가설 입증, 번역 현상 관찰, 번역 전략 모색, 학습자 과제의 종합적 분석(남원준, 2014)
- 장단점: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통해 번역 능력 향상을 할 수 있으나 코퍼스 내용의 제한도 받을 수 있다 (남원준, 2014)
- 교사의 지도하에 코퍼스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번역 현상을 관찰하고 번역 전략을 모색하므로 번역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음(남원준, 2014)

✓표층결속기제

- 표층결속기제는 텍스트의 다양한 부분들 간의 연결을 위한 어휘적 문법적 및 기타 관계들의 망이다 (Baker, 2005)
- 표층결속기제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L2언어 교육에 집중되며 이론 교육과 함께 예시제시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강화하고 과제수행을 통해 학습자의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교육방안이 대부분 (심영식, 2011)

→ 코퍼스 활용은 표층결속기제에 대한 이해 증진, 표층결속기제 번역 전략 관찰 등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연구결과2-한중기술번역 과정에서 표층결속기제 번역 교육을 위한 코퍼스 설계

✓코퍼스 종류

- 병렬코퍼스를 통해 번역전략을 배울 수 있다(남원준, 2014)
- 학습자 코퍼스를 통해 학생들의 번역을 비교·분석할 수 있고 학습자의 진척도 추적할 수 있다(남원준, 2014)

→병렬코퍼스, 학습자 코퍼스 구축 필요

✓코퍼스 규모와 구성

-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코퍼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김혜림 2017, Koester 2010:68)
- 대표성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집단이 잘 정의 되어 있어야 하고 변산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김혜림 2017 재인용, Biber 1993:243)

→ 한중 기술번역과정에서 다루는 장르인 계약문서, 제품 매뉴얼, 인터넷 홍보자료(윤종민, 2013)등을 중심으로 5만자 코퍼스 구축

연구결과2-병렬코퍼스 예시

1.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一) 中止按本协定的规定进一步削减此产品关税;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合同类文本) 所属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2.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各缔约方应当考虑召开听证会, 不论是应利害关系方书面申请或出于自主决定。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合同类文本) 所属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3.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2. 根据第2.4条 (削减或取消关税) 规定, 在附件2-A (削减或取消关税) 的减让表中明确的海关税基准税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合同类文本) 所属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4.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严重损害威胁是指建立在事实基础上的, 而非仅凭指控、推测或极小的可能性断定的, 明显迫近的严重损害;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合同类文本) 所属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5. 8.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八、缔约方终止保障措施后, 关税税率应为根据缔约方在附件2-A (削减或取消关税) 减让表中所列在未采取该措施情况下本应适用的税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合同类文本) 所属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6. 반덤핑협정 제9.5조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덤핑 마진이 반덤핑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수출 당사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当根据《反倾销协定》第9.5条确定单独的倾销幅度时, 如确定的倾销幅度低于《反倾销协定》第5.8条规定的微量标准, 则不应出口缔约方的出口商或生产商征收反倾销税。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合同类文本) 所属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7. 4.당 당사국은 반덤핑 절차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할 때,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대체 가격 또는 대체 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 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는

四、缔约双方确认在反倾销调查计算倾销幅度时不使用第三国替代价值的方法, 包括在确定正常价值和出口价格时不使用替代价格

계약 문서, '또는' 검색 화면

연구결과2-학습자 코퍼스 예시

7.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只静静地看漫天纷飞的花瓣雨，心也随之飞扬，说樱花是等待春天的理由也不为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8.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只是望着随风飘舞的花瓣，心都要甜到化了，所以，说樱花是人们等待春天的理由，也不为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9.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仅仅是看着那随风飘起的花瓣，也会让人不由自主地心生愉悦，说樱花是等待春天的理由一点也不为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10.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只看着随风飘舞的花瓣，令人春心荡漾。所以说樱花是我们等待春天的理由也不为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11.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呆呆地望着花瓣纷飞的样子，让人感到宁静舒适，可以说樱花是人们等春天的理由。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12.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仅望着随风飘散的花朵，就感到心头愉悦，那么，说樱花是等待春天的缘由，也不算是言过其实。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13.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하니, 빗꽃은 어쩌면 봄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樱花花瓣随风飘舞，望着这景色心情就会变得柔软，说等待春天的理由是樱花也不为过。

标签 (默认) 记忆库名称 (第三周) 所有者 (suzisky@gmail.com) 语言方向 (韩语->中文 (简体))

관광텍스트, '만으로' 검색 화면

연구결과3-코퍼스를 활용한 표층결속기제 번역 교육 방안 설계

표층 결속성 이해

- 해당 장르의 한국어와 중국어 결속성 특징과 차이점 소개, 병렬코퍼스 관찰

표층 결속성기제

번역 연습

- 병렬코퍼스 활용

번역결과물 토론

- 학습자 코퍼스 분석

결론

- ✓ 선행연구를 통해 표층결속기제의 번역 교육에서 코퍼스 활용 적절
- ✓ 한중기술번역 과정에서 표층결속기제 교육을 위해 코퍼스 구축과 함께 교육 방안 제시했음
- ✓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과 구축한 코퍼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실시하여 보완해 나감

참고문헌

김혜림(2017), 신문사설 코퍼스에 기반한 한중 번역 명시화 연구

남원준(2014), 학생 중심 번역교육을 위한 코퍼스 활용에 관한 고찰

심영식(2011), 스페인어 텍스트 결속구조와 효과적 교수방안

윤종민(2013), 기술 전문 분야 번역의 이론과 실제

MonaBaker(2005), 『말 바꾸기』(곽은주 등 번역)